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만취 신입생 손가락 3개 절단

입력 : 2017-02-22 19:08 | 수정 : 2017-02-22 19:24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참가해 밤새 술을 마신 신입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2일 고성의 한 콘도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수도권 모 대학 신입생 A(21) 씨가 이날 새벽 술에 만취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 OT 참가 대학생 손가락 절단 사고 난 기계실
22일 오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참가한 대학 신입생이 만취 상태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안전사고를 당한 고성군 토성면의 한 콘도 6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119 소방대원이 살펴보고 있다. 2017.2.22 [속초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A씨는 이틀째인 지난 21일 전체 행사를 마치고 이튿날 새벽 1시까지 학과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해 선배, 동료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취한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동료에 의해 4층 객실로 옮겨졌지만 사라지고서 6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절단된 손가락 3개는 기계실 바닥에서 발견됐다. 동료 학생들은 경찰에서 “A씨가 객실에 없어서 찾던 중 기계실에 쓰러진 채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된 A 씨를 응급 처치 후 서울의 봉합 전문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6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움직이는 와이어에 손가락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콘도 내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지만, 객실 복도와 6층에는 CCTV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성 조한중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5m 추락 45명 탑승버스, 사망자는 '1명'..."안전띠가 구했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2.22 오후 8:51

최종수정 2017.02.22 오후 9:52

730

499



이송되는 부상자(단양=연합뉴스)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60.5km 지점에서 금오공대 대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5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다수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vodcast@yna.co.kr

OT 가던 대학생 44명 모두 중경상...안전띠 덕에 대형사고 모면

안전띠 안 매면 사망위험 최고 12배 상승..."무조건 습관화해야"

(단양=연합뉴스) 전창해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에서 운전기사와 대학생 45명이 탄 버스가 5m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 운전기사가 숨졌지만, 다른 탑승자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

이들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 덕에 대형사고를 모면했다.



아수라장 된 단양 버스 추락 사고 현장.

22일 오후 5시 45분께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234-1 부근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45인승 관광버스 1대가 5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언덕 아래로 떨어져 전복됐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 A(62)씨와 경북 구미 금오공대 대학생 4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원주로 2박 3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중이었다.